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결코 강행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효가 됐다. 투표 결과에 담긴 교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 없이 정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무리수를 둔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사퇴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민의(民意)는 분명하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의제가 일과성(一過性) 논쟁거리가 아닌 시대적 담론이자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선진국 절반 안되는 복지지출

그동안 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왔다. 차별로 인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저소득층 일부에 복지정책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복지에는 이제 선택이 아닌 방향의 문제

가 됐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를 선택하려면 현재 우리의 복지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복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인가?

장기간 군부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다 5·18민중항쟁 등 피맺힌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퇴직 이후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의 위험을 대비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진용을 모두 갖추었다.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

뀌어 최저생활 보장권을 강화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도 마련됐다.

문제는 사회보장의 질이다. 재정 안정을 위해 급여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수준을 낮추다 보니 생활안정효과가 떨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진료행위가 많고,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 명을 넘고, 근로자의 60%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규모도 OECD 회원

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뒤쳐져 있다. 승자 독식의 시장이 만들어낸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은 삶에 희망을 잃고 있다. 연간 1만5천여명, 하루 40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 사망자 수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반증한다. 복지 국가는 아직 먼 나라 얘긴 셈이다.

복지 혜택은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다층체계도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 4·27 재·보선,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이는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

백가쟁명의 복지논쟁 속에서 여야가 무엇을 우선시 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잘 살필 일이다. 루마니아로 제5공화국을 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탓에 복지는 늘 후순위였다. '공생'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에서도 토목사업에 밀려야 했다. 정치권의 복지공세에 담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척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담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총선과 대선 주자들에게 '대목'이나 다름없다. 유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지 프레임에 둘러싸고 전개될 정치권의 경쟁에 앞서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는 무엇인지 '차례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부장) who@kwangju.co.kr

시 설

5·18 가치 일깨워준 '세계기록 유산' 등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5월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5·18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한 지 석 달여 만이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UN이 5·18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정신을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5·18은 민주화 항쟁 의미를 넘어 인권 존중과 정의실현이라는 인류 공통의 이상과 가치 구현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추앙받게 됐다. 5·18이 필리핀 민주혁명과 남아공 인권운동 등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5·18의 정신과 가치가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멈춰선 안 된다. 광주 시민과 국민, 나아가 세계인의 삶 속에 표현되고 실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광주의 'UN 인권도시' 지정,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UN이 인정하고 세계기록 유산으로까지 등재된 5·18 기록물이 아직까지 국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가 서둘러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또한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는 일부 극우세력의 5·18에 대한 망동과 망언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자행해온 온갖 폄훼와 왜곡이 거짓과 허구관여로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밝혀지지 못한 발포 명령장 등 진상규명에 온 국민이 뜻을 모을 때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세계 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민통합과 남북 화해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일 것이다.

남구청 건축허가 '잘못 책임' 어떻게 질건가

광주시 남구청이 내준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과 함께 연접해 지어진 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이 150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8~11월 사이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예정인 의료폐기물(1127㎡)과 음식폐기물(1003㎡), 건축폐기물 처리시설(1040㎡) 등 3가지 건축물의 개별 연면적이 1500㎡ 이하이고, 사업 주체와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상황에서 취한 이 같은 남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은 지탄의 대상

이 아닐 수 없다.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얼마든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이 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됐다며 그렇게 허가에 반대했음에도 서둘러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건지 아니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이미 상당부분 지어진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경우 책임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물론 광주시가 건축허가 적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지만 허가 취소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남구청은 해당 공무위반만 아니라 직상위 책임을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축업주 전반에 대한 수습을 단행해야 한다. 광주시도 또다른 논란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류 동 훈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고액의 출연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인방을 독차지하고 있는 유명 대중스타들에게 자원이 집중된다면, 연예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연기자, 개그맨 등은 그야말로 고군분투한다. 그런데 지역 사회는 각종 봉사 공연이 필요하면 지역의 연예인들에게 손을 내민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이 마찬가지다. 서울, 일부 스타에게 집

'지역대중문화살리기운동본부' 시작하자

중되어 있는 문화권력을 지방의 스타들에게 분산시키는 운동은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이고, 국가균형발전운동이다. 대중문화의 소재가 각 지방에서 골고루 다루어 질 때 각 지방의 소중함이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의식이 바뀌게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살리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중문화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대해야 한다. 대중가요를 예로 들면 지역의 시민들이 작사를 하고, 지역의 작곡가와 가수, 스튜디오제작사에서 노래를 만들면, 지역의 방송국에서 열심히 틀어준다.

또 지역의 노래교실에서는 지역가수들의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방에서는 지역가수의 노래 포스터를 따로 만들어 붙인다. 각종 행사에서는 우리 지역가수를 먼저 무대에 세

우고, 시민들은 우리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방송에 더 많은 박수를 보내 준다. 그리고 지역 가수들은 시민들을 위한 위문공연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더 많이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각종 행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치를 수 있고, 시민들은 지역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쉽게 다가서서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을철 행사의 시즌, 노래자랑도 많이 열린다. 이런 행사에서 우리 지역 가수들의 노래로 도전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능프로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예능인들과 함께 각종 프로들을 만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콜롬비아 청소년월드컵을 다녀와서



이 준 영

조선대병원 의사이자 광주FC 팀주치의인 나는 선수들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순한 의사 업무뿐만 아니라 메디컬 테스트, 도핑 관리, 영양 관리 등을 하며 스포츠 의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초 대한축구협회의 의무분과 위원장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현재 파견된 국가대표 팀 주치의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지 모르니 팀을 맡아 주치의 임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16강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그리고 한국 팀이 16강에 올라갈지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21시간의 비행 끝에 보고타에 도착했다.

보고타는 해발 고도 2500m의 고산에 위치한 대도시로 워낙 지대가 높아 기압상승으로 인한 가슴 답답증이나 고산병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보고타를 체 경험해보기도 전에 16강이 열리는 마니잘레라는 도시로 이동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열대의 나라, 마약, 커피로 대표되는 정도 밖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대한축구협회의 장진용 과장을 만나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연습장을 찾아 선수들과 여색한 첫 만남을 하게 되었다.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은 17세 이하 대표팀부터 구성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이광종 감독의 지도 아래 끈끈한 조직력으로 정경이 난 팀이다. 하지만 지동원 선수가 유럽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손흥민, 남태희와 같은 탑 공격수 등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사상 제일 약체 팀으로 분류됐다.

모두 우리 팀이 예선 3차전에서 스페인에 크게 패할 것이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전날 성인 국가대표팀이 일본에 3대 0으로 완쾌하고 어차피 저바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빼앗아간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이 평소에도 알고 닦았던 팀 플레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전후반 0대 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일곱 번째 키커까지 6-6으로 맞섰다. 하지만, 여덟 번째에서 스페인의 오리올 로메우가 골네트를 흔든 뒤 김경중(고려대)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가 골대를 들었다.

여기서 숨은 일화 하나. 예선전 경기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을 선보였던 김영욱 선수, 경기 당일 양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졌는데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단속하고 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한해 중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먹을거리도 마음도 풍족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한가위라는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변색되고

연장전 들어서 쥐가 양쪽 사타구니까지 올라와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많이 아프다고 물어보곤 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순간에 바로 내게 "선생님, 교체 선수 더 이상 없죠? 저 그냥 팔래요"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바로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경기 후 도핑센터로 가서 무작위로 선출된 스페인과 한국의 선수에 대한 도핑을 관찰하였고 속으로 돌아왔다.

경기가 끝난 후의 숙소풍경은 저서 아쉽지만 이내 모두 큰 짐을 벗어버린 듯한 출가분한 분위기였다. 샤워 후 각자의 경기복에 한국으로 가지고 갈 동료의 싸인을 받느라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결국, 그 뜨거운 승부차기의 현장에서 전 코칭 스태프가 한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한 줄로 서서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젠, 서먹했던 이광종 감독과 단장, 코치들과도 격의 없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조선대병원 관절센터 교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정치인들은 명절을 자신의 선거운동 기회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은 정치인에게 선물 등을 바라지 않아야 하겠다.

▲김지영·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프랑스의 현대사상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1929~2007)는 “우리는 사물이 아닌 기호(記號·상징 또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파했다.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아자동차의 쏘울(SOUL)처럼 값싸고 실용적인 소형차를 외면하고, 비싸고 커다란 벤츠(BENZ)를 타고 다니는 게 가 땅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있었던 거지.”
명품과 시뮬라시옹
명품업체인 에르메스의 버킨(Birkin) 핸드백을 사기 위해 국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선금을 내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버킨 핸드백이 단순한 가방의 차원을 넘어서 ‘부와 사치’와 광고에서 되풀이되는 그의 착실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일 뿐이다.
보드리야르는 벤츠나 강호동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기능보다도 그 사물이 지닌 이미지를 더 중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재는 사라지고 이미지만이 남게 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 이름 짓고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했다. 영화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형제도 시뮬라시옹 이론을 차용했다. ‘시리즈 1’의 잘라난 영화 대본에는 모피어스가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네오, 너는 지금까지 꿈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말야, 너의 전 생애가 땅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있었던 거지.”
명품업체인 에르메스의 버킨(Birkin) 핸드백을 사기 위해 국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선금을 내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버킨 핸드백이 단순한 가방의 차원을 넘어서 ‘부와 사치’와 광고에서 되풀이되는 그의 착실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일 뿐이다.
보드리야르는 벤츠나 강호동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기능보다도 그 사물이 지닌 이미지를 더 중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재는 사라지고 이미지만이 남게 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 이름 짓고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했다. 영화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형제도 시뮬라시옹 이론을 차용했다. ‘시리즈 1’의 잘라난 영화 대본에는 모피어스가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네오, 너는 지금까지 꿈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말야, 너의 전 생애가 땅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있었던 거지.”
명품과 시뮬라시옹
명품업체인 에르메스의 버킨(Birkin) 핸드백을 사기 위해 국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선금을 내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버킨 핸드백이 단순한 가방의 차원을 넘어서 ‘부와 사치’와 광고에서 되풀이되는 그의 착실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일 뿐이다.
보드리야르는 벤츠나 강호동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기능보다도 그 사물이 지닌 이미지를 더 중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재는 사라지고 이미지만이 남게 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 이름 짓고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했다. 영화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형제도 시뮬라시옹 이론을 차용했다. ‘시리즈 1’의 잘라난 영화 대본에는 모피어스가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네오, 너는 지금까지 꿈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말야, 너의 전 생애가 땅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있었던 거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唐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0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기사·지국(국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표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권매매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